

100일 정기국회 시작...與 “민생 실현” 野 “안전 우선”

새누리, 주택시장 활성화 등 30개법안 처리 전력 새정치, 최저임금법 등 서민경제 안정 방안 방점 세월호 특별법 등 극한 대치 속 협로 예고

연제준 파행국회가 정상화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정기국회 개최를 앞두고 여야는 전략을 짜고 최우선 처리법안을 추리는 등 입법준비 및 현안 처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전면으로 내세워 처리함으로써 민생을 돌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법안 입법과 가계소득 향상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겠다는 생각이 다.

◇**與는 ‘경제살리기’**=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을 무엇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1일 “세월호특별법 논의에 밀려 경제살리기 법안까지 발이 묶였다. 하루라도 빨리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려 놓은 30개 우선처리법안의 처리에 새누리당은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30개 우선법안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주택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한 법안들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소득세법, 재건축조과이익환수제지법 등이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범최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후속대책 중 해양경찰청 해체 등

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꼽고 있다.

◇**野 ‘안전 확보’**=새정치연합은 이번 정기국회 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로 내걸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세월호특별법안이 최우선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 말고도 야당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으로 여당과 함께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노후 불안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청년실업 불안에 대한 근로기준법,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5대 신(新)사회위험 해소를 위한 법안’으로 이름 붙여 추진한다.

경제법안에 있어서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방점을 뒀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기업을 위한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여당의 민생법안 중 상당수는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며 “우리는 가계소득을 높이고 생활비를 낮추는 법안을 통해 ‘진짜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과건근로자 보호법과 최저임금법, 저소득층 생활안정법, 주거복지기본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 중 서비스산업 기본법, 의료법, 개발이익환수포기법 등에 대해서는 반대 기조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이 지난 31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에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회 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고 난 뒤 밖으로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뒤에 함께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더 노력”

대통령직속 지방위 부산세미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중)는 지난 29일 부산시 한화리조트에서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초청 지역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위가 주최하는 지역발전 정책세미나는 매년 상·하반기 지역현장을 돌아보며 지역발전의 현안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이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과 제안들을 바탕으로 지역정책 수립에 반영해왔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 위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지역언론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역과 지역민에게 얼마나 발전적이고 바람직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본 뒤 지역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김광희 부산시 기획재정관이 ‘부산시 현안사항’, 박성호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장인 ‘지역발전 정책추진 1주년 주요 실적 및 향후계획’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으며 이어 지역정책의 발전방안을 놓고 열린 토론이 전개됐다.

기자단은 토론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작년 7월 출범한 이래 지난 1년간 국민행복, 지역희망이라는 모토 아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당·정, 내년 예산 올해보다 5% 안팎 늘린다

총 373조5900억 편성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투자·안전 예산은 확대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안팎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1일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는 2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26일 당정 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들었다”면서 “다가오는 당정 협의에서 예산안 총액 증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기 활성화와 세수 여건, 균형 재정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 안팎 늘리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면서 “최종 숫자는 당정 협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올해(355조8000억원)보다 5% 늘어나면 373조5900억원이 된다.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0% 증가한 377조원이다. 또 예산 증액률 5%는 올해 예산 증가율 4%와 정부가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액률 3.5%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려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난 7월에 예측된 10% 안팎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새누리당의 다른 관계자는 “당정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세수 등을 감안하면 무한정 내년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면서 “예산 증가율이 5% 전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내수활성화 등 제각각 경기 진작을 위

한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가 제기된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예산을 확충하고 경기 진작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재정건전성을 위해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한다는 데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내수 기반 확대, 투자 여건 확충 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입시·취업·주거·보육·노후 등 세대별 5대 불안 해소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12조4000억원보다 12.9% 늘어난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다음 달 중순에 발표한 뒤 같은 달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박대통령, 3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제

손톱 밀 가시 92건 등 종합점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3일 오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 민정속 대변인은 지난 31일 “지난 3월20일 열린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국민의 현장견해를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167일 만에 열리는 2차 회의는 예초 지난 20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1차 회의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준비부족 탓에 박 대통령이 연기를 지시하면서 이날 열리게 됐다.

민 대변인은 “1차 회의 이후 각 부처가 추진중인 규제비용총량제나 기존 규제 10% 감축, 미등록 규제발굴 및 정비, 네티켓의 규제방식 전환 등 1차 회

의에서 취합한 현장견해의 과제 52건과 손톱 밀 가시 92건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새로운 규제포털도 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 이용 및 건축과 인터넷경제, 농업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관계 부처가 보고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7시간이 넘는 생방송 마라톤회의로 열린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2차회의도 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의 다양한 규제개선견해를 듣고 논의하는 토론절차가 마련됐다. 2차 회의도 생방송 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각 부처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 규제개혁위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박지경기자 jki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점밀 미세 렌즈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 부작용: 수술 초기 이안 빛반경,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081110-증-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세션 30여회)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볼레리, 써미지, 웨나트 복합치료
② 에드를레이저: 스무스빔,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③ 세오 레이저: 쉐닝맥스, 디오오유드
④ 피부 미백: 쉐닝맥스, 쉐닝맥스, 쉐닝맥스
⑤ 주름·출혈: 프락셀, 울트라펄스, 프락셀, 프락셀
⑥ 인트라셀, 프락셀, 프락셀
⑦ 비인: 네오모트, 지방흡입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문로 111-1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3F
문의: 02-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